

사회복지 전공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윤일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Majoring in social work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s Stress : Focusing on the latent mean analysis by Gender

Il-Hyun Yun

School of Social Work,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전체모형을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규명 하였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를 변인으로 사용 하였다. 광주지역 사회복지학과 246명의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 하였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보다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elfare of students and the Career Stress. This study verified the complete model equation through the structu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gender were significant.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were used as variables. From the Gwangju Regional Social Welfare, 246 people were college studen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atent mean analysis. The Male and Female's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were similar. The impact on the path of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was also similar. The Female group had a stronger impact than the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Male. The Social Welfare of Students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Career Stress were different in the male and female groups.

Keywords :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Career Stress

본 논문은 광주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Il-Hyun Yun(Gwangju Univ.)

Tel: +82-10-2684-6863 email: kwinae@hanmail.net

Received April 28, 2016

Revised (1st May 24, 2016, 2nd June 1,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대학 생활은 학업활동 세계에서 직업세계로 준비하거나 진입하는 시기로서,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취업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하여 취업기관의 다양한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시절동안 외국어, 봉사경험, 자격증, 다양한 실제 경험 등을 취득해 놓아야 한다[1].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에 들어와서 자아정체감 확립,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등 여러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가운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실제 현실에서도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정체감 확립과 사회적, 심리적인 독립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취업스트레스는 그들이 당면한 매우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이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3].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에게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 및 자신감의 감소, 성격저하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4].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스트레스는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5], 전공[6],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7], 취업준비활동[8], 진로적응성[9], 자아탄력성[10], 전공만족도[11], 진로정체감[12], 고용가능성[13]등 최근 들어 활발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일차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차원적인 접근의 연구 방법들은 미흡하다.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14]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누계 총인원은 789,071명이며 남성은 205,879명(26.09%), 여성은 583,192(73.91%)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70,894개로 476,94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2.93명인 40,934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 2015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인원인 75,848명을 취업에 대입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34,914명인 46.03%가 비취업 인원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직을 고려한다면 80%이상이 비취업 인원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 전공자에 대한 취업은

매우 낮다. 그동안 사회복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진로 동기나 진로 방향의 탐색 연구에 국한되어 왔다.[15]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취업스트레스 대처행동[16] 등의 연구는 있으나 사회복지 전공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특히,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성별에 따라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실증분석연구 역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특성 즉,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들을 통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구하는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의 4가지로 정의 될 수 있다.

- 가설 1: 성별에 따라 사회복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는 각기 다른 수준을 보일 것이다.
- 가설 2: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이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취업스트레스는 감소시킬 것이다.
- 가설 3: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4: 사회복지 전공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기본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전체모형을 검증한 뒤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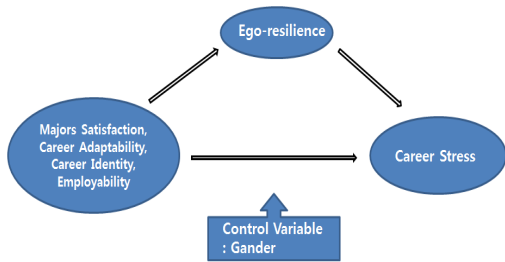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표본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2015년 11월 3주간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 중 남학생은 70명(28.5%), 여학생은 176명(71.5%)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전국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인원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17]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교과만족(2문항), 관계만족(2문항), 일반만족(2문항), 인식만족(2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전공만족도의 점수는 각 항목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19이었다.

2.3.2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18]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진로적응성은 단일요인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91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19]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으며, 하위요인으로 자이이해(7문항), 직업이해(11문항)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채점은 역으로 실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 즉 진로정체감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는 .920이었다.

2.3.4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13]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변인으로 직업의식(3문항), 직업탐색(4문항), 정신건강(2문항), 구직기술(6문항), 구직 대응성(8문항) 5개 영역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Cronbach's α 는 .943이었다.

2.3.5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20]가 사용한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일요인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66이었다.

2.3.6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21]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성격(6문항), 학업(4문항), 가족환경(5문항), 학교환경(4문항), 취업불안(3문항) 5개 영역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 합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45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7.0을 이용하여 다집단분석과 잠재평균분석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고,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적당한 적합도이다. TLI 과 CFI 값은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22]

3. 연구결과

3.1 주요변인들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에 앞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측정하려는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분석한 결과 주요변인들은 구조방정식을 적용하는 요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21]에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Table 1과 같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Correlational Relationship

| | 1 | 2 | 3 | 4 | 5 | 6 |
|---|---------|---------|---------|---------|---------|---------|
| 1 | 1 | .511*** | .250* | .640*** | .422*** | .466*** |
| 2 | .410*** | 1 | .363** | .828*** | .636*** | .467*** |
| 3 | .250** | .427*** | 1 | .404** | .172 | .475*** |
| 4 | .294*** | .624*** | .549*** | 1 | .528*** | .512*** |
| 5 | .303*** | .581*** | .467*** | .591*** | 1 | .376** |
| 6 | .276*** | .211** | .389*** | .264*** | .304*** | 1 |

- 1: Majors Satisfaction, 2: Career adaptability, 3: Career Identity, 4:Employability, 5:ego-resilience, 6 :Career Stress
 - * p<.05, ** p<.01, ***p<.001
 - Diagonal top men, women's groups are displayed at the bottom of the diagonal

3.2 잠재평균분석

잠재평균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를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비교 하였다.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남성 집단 $\chi^2=423.582(df=309)$, $p=.000$, $TLI=.892$, $CFI=.905$, $RMSEA=.073$, 여성 집단 $\chi^2=446.582(df=309)$, $p=.000$, $TLI=.911$, $CFI=.922$, $RMSEA=.050$ 으로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형태 동일성이 검증되었기에 측정 동일성 모형은 형태동일성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 값 차이($\Delta\chi^2$)를 통해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Delta\chi(21, N=246)=38.589$, $p=.006$)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 RMSEA 등이 기저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 제약이 기각되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모형 2와 모형 1의 적합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TLI=-.003$, $RMSEA=.001$), 측정 동일성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onform to the invariance verification indices

| | χ^2 | DF | TLI | RMSEA |
|--|----------|-----|------|-------|
| Model 1: configural invariance | 871.880 | 618 | .903 | .041 |
| Model 2: metric invariance | 910.469 | 639 | .900 | .042 |
| Model 3: metric and intercept invariance | 940.107 | 666 | .903 | .041 |
| Model 4: Metric, Scale, Factor variance invariance | 954.029 | 672 | .901 | .041 |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으로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2와 각 측정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 3) 간의 값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27, N=246)=29.638$, $p=.006$), 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앞의 측정 동일성 검증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L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는 모형 3과 모형2 간에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TLI=.003$, $RMSEA=-.001$), 절편 동일성이 성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의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두 집단 간의 관찰된 평균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코헨이 제시한 기준 값(d: .2이하 작음, .5이하중간, .8이상 큼)[21]에 의하면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는 성별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진로가능성은 성별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Table 3. The average potential difference analysis

| | Male | | Female | | Effect Size (d) | Total Mean |
|---|-------------|------|-------------|------|-----------------|------------|
| | Latent Mean | Mean | Latent Mean | Mean | | |
| 1 | 0 | 3.28 | .049 | 3.36 | .176 | 3.31 |
| 2 | 0 | 3.38 | .123 | 3.54 | .265 | 3.43 |
| 3 | 0 | 2.97 | .144 | 3.13 | .258 | 3.02 |
| 4 | 0 | 3.30 | .097 | 3.43 | .219 | 3.33 |
| 5 | 0 | 3.28 | -.045 | 3.23 | .062 | 3.26 |
| 6 | 0 | 3.32 | -.008 | 3.31 | .008 | 3.31 |

- 1: Majors Satisfaction, 2: Career adaptability, 3: Career Identity, 4:Employability, 5:ego-resilience, 6 :Career Stress

3.3 남녀집단에서의 가설모형 적합도 비교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함을 검증하는 분석 기법이다. 주요변인의 측정모형 동등성이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검증되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할 결과 $\chi^2=910.469(df=639)$, $p=.000$, TLI=.900, CFI=.909, RMSEA=.042로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Table 4. Models of group-specific parameter estimates (Model added to the identity constraints on factors loading)

| Parameter | | Male | Female |
|----------------|-----------------------|--------------|-------------|
| ego-resilience | Majors Satisfaction | 2.343(.264) | .191(.315) |
| | Career adaptability | 2.941(.162) | .170(.351) |
| | Career Identity | .108(.810) | .136(.453) |
| | Employability | -3.172(.312) | .602(.017)* |
| Career Stress | ego-resilience | -.505(.755) | .163(.330) |
| | Satisfaction in Major | 2.837(.633) | .581(.025)* |
| | Career adaptability | 2.770(.686) | -.268(.233) |
| | Career Identity | .708(.260) | .675(.008)* |
| | Employability | -3.292(.694) | -.248(.477) |

- * p<.05, ** p<.01, ***p<.001

남성과 여성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어 모형 내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Table 5와 같이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경로 동일성의 적합도는 $\chi^2=928.886(df=648)$, $p=.000$, TLI=.898, CFI=.906, RMSEA=.042로 만족할만한 적합 수준을 보였다. 동일성 제약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Delta\chi^2=5.138$, $df=1$, $p<.05$),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Delta\chi^2=6.650$, $df=1$, $p<.05$), 진로정체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경로로 나타났다($\Delta\chi^2=7.368$, $df=1$, $p<.01$).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경로집단은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s between groups (Variation)

| Parameter | | $\Delta\chi^2/DF$ | $\Delta\chi^2$ | ΔTLI |
|-----------------|-----------------------|-------------------|----------------|--------------|
| ego-resilience | Majors Satisfaction | 1 | 1.106 | .000 |
| | Career adaptability | 1 | 1.618 | .000 |
| | Career Identity | 1 | .002 | .000 |
| | Employability | 1 | .961 | .000 |
| Career Stress | ego-resilience | 1 | 5.138* | .001 |
| | Satisfaction in Major | 1 | 6.650* | .002 |
| | Career adaptability | 1 | .003 | -.001 |
| | Career Identity | 1 | 7.368** | .002 |
| | Employability | 1 | 1.129 | .000 |
| all constrained | | 9 | 18.417* | .002 |

- * p<.05, ** p<.01, ***p<.001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요인인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성별에 따른 차이와 요인들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성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차이가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각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은 사회복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이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취업스트레스는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각각 되었다. 즉,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

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가능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가능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에서 고용안정성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전공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사회복지 전공생에 대한 취업지도는 남녀 차이를 고려해서 시도를 하고 여성 집단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안정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 등의 변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계속된 연구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Jung-Hyun Lee, "Teaching self-efficacy and self-service resilient impac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12), pp.7040-705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7040>
- [2] Seong-Ah Ahn, Mi-Young Sim,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10), pp.7021-703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0.7021>
- [3] Lee, M. S.,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Scal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4] Sung-Kyung, Kim,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2), pp. 215-237, 2003.
- [5] In-Kyun Sea, Yon-Sil Lee, "To Verify a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Considering Suicide: Comparing Between a Female Group and Male Group",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3), pp.25-53, 2014.
- [6] Seon-Hee Park, Hyun Joo Park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a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1), pp.67-81, 2009.
- [7] Mi-Ra Lee, Bun-Hee Park.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prepar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1(4), pp.77-93, 2014
- [8] Sun-Mi Choe, "The Effect on Employment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in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4), pp.2556-256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556>
- [9] Kye-Young Jang, Bong-Whan Kim,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2), pp.539-558, 2011.
DOI: <http://dx.doi.org/10.15703/kjc.12.2.201104.539>
- [10] Tae-Sun, Kim & Hye-Won, Hwang, "The Effect of Social Work Practicum on Career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9, pp.97-126, 2009.
- [11] Jin-Su Lee, "A Study on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ach Grade",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2014 Conference Proceedings, pp. 213-219, 2014.
- [12] Jung-Hye youn,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of moderating self 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30, pp.29-55, 2015.
- [13] Jong-Chan Le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 ability",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3.
- [14]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5 Statistical Year book of Social Workers"
- [15] Jin-He Jeong,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2012.
- [16] Jeuong-A Kim,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Stress Coping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vol 23(1), pp.141-164. 2014.

- [17] S. Y. Lee,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9.
- [18]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3(1), pp.3-24, 2005.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4270271>
- [19]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0.
- [20] Oh-Hyun S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Job Demands, Burnout, Job Engagement and Customer Orientation of Hotel Service Encounter Employe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2013.
- [21] Hye-Jeong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ttach to Parents,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Stress"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3.
- [22] Hong, S., Malik, M. L., Lee,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pp.636-654, 2003.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03251332>

윤 일 현(IL-Hyun Yun)

[정회원]



- 2002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웰니스